

# 생태환경논집

JOURNAL OF ECOLOGICAL ENVIRONMENT

제7권 제2호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식물상 外’

Vol. **7**  
no.2  
2019

# 생태환경논집

JOURNAL OF ECOLOGICAL ENVIRONMENT

## 목 차

---

Vol.7, no.2

December, 2019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식물상

| 권오정 ..... 2

생태환경논집 주제 다양성 분석

| 권오정 ..... 21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식물상

권오정\*

---

##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1. 출현종
2. 귀화식물

IV. 결론

---

---

\*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소 (ojtale@dongguk.edu)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의 식물상을 확인하고 향후 변화 및 추이를 살피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의 식물은 237분류군이 관찰되었고, 귀화식물은 31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국화과에서 25분류군이 확인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초본이 111분류군, 목본이 126분류군으로 목본의 비중이 다소 높았다.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귀화율은 13.1%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남산과 인접하고 있어 많은 왕래가 이루어지는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식물종과 상대적으로 낮은 귀화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귀화식물, 귀화율, 대학교, 식물상, 외래종, 캠퍼스

## I. 서론

남산은 해발 270m, 면적 2,454,140m<sup>2</sup>이며, 생태경관보전지역(신갈나무 군락지 360,529m<sup>2</sup>, 소나무 군락지 347,058m<sup>2</sup>)이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지정되어 있다(서울특별시, 2017). 조사 대상지인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남산 북측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1).

남산은 넓은 면적과 생태경관보전지역, 그리고 남산식물원, 장충단공원 등과 같은 녹지를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남산에 인접해 있는 동국대학교 역시 이를 반영해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건물 옥상에 녹화를 하는 등의 캠퍼스 조경이 이루어져 왔다. 다만, 이렇게 조경 및 녹화가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 어떠한 식물이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되어 오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해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의 식물상을 확인하고 향후 변화 및 추이를 살피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 II. 연구방법

연구대상지인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는 면적 341,498m<sup>2</sup>이며, 2019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1). 조사범위는 옥상녹화지역을 제외한 조경공간 및 자연녹지에 해당한다. 식물 동정은 이창복(2003a; 2003b), 김진석 등(2011), 김진석 등(2018), 조양훈 등(2016)의 문헌을 참고하였고, 학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그림 1. 연구 대상지 위성사진

외국 원산의 식물이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자연생태계에 들어와 도태되지 않고 자력으로 토착하여 10년 이상 생육, 번식, 확산하며 자생종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경우 귀화식물이라고 한다(정수영 등, 2016). 이러한 귀화식물은 자생식물과 경쟁하면서 우점하거나 기존 생태계의 교란요인이 되기도 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기도 하다(Park et al., 2011). 국내에서는 귀화식물과 관련하여 침입외래식물 · 관심외래식물 · 불확실종 · 사전귀화식물로 구분하여 268분류군을 지정하고 있으며 침입외래식물로 분류된 귀화식물은 250분류군에 해당한다(국립수목원, 2017; 정수영 등, 2016). 환경부에서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하고 있으며 식물의 경우 현재 15종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표 1). 식물상 조사 후 귀화식물과 생태계교란식물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고 부가적으로 귀화율(Numata, 1975)을 계산하였다.

$$\text{귀화율(Naturalization Index)} = S / N \times 100$$

(S : 귀화식물종 수, N : 일정 지역의 전체 식물종 수)

표 1. 생태계교란 식물 (환경부고시 제2019-185호)

국명	학명
돼지풀	<i>Ambrosia artemisiaefolia</i> var. <i>elatior</i>
단풍잎돼지풀	<i>Ambrosia trifida</i>
서양등골나물	<i>Eupatorium rugosum</i>
털물참새피	<i>Paspalum distichum</i> var. <i>indutum</i>
물참새피	<i>Paspalum distichum</i> var. <i>distichum</i>
도깨비가지	<i>Solanum carolinense</i>
애기수영	<i>Rumex acetosella</i>
가시박	<i>Sicyos angulatus</i>
서양금혼초	<i>Hypochoeris radicata</i>
미국쑥부쟁이	<i>Aster pilosus</i>
양미역취	<i>Solidago altissima</i>
가시상추	<i>Lactuca scariola</i>
갯줄풀	<i>Spartina alterniflora</i>
영국갯끈풀	<i>Spartina anglica</i>
환삼덩굴	<i>Humulus japonicus</i> Siebold & Zucc.



### III. 연구결과

#### 1. 출현종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의 식물은 83과 173속 208종 3아종 17변종 8 품종 1재배종 237분류군이 관찰되었다(부록 1). 이 중 초본은 111분류군, 목본은 126분류군에 해당하였다. 가장 많은 식물이 출현한 과는 국화과, 그 다음으로는 장미과로 각각 25분류군, 20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다만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 25분류군은 모두 초본이었고, 장미과의 경우 19분류군은 목본, 1분류군은 초본으로 나타나 세부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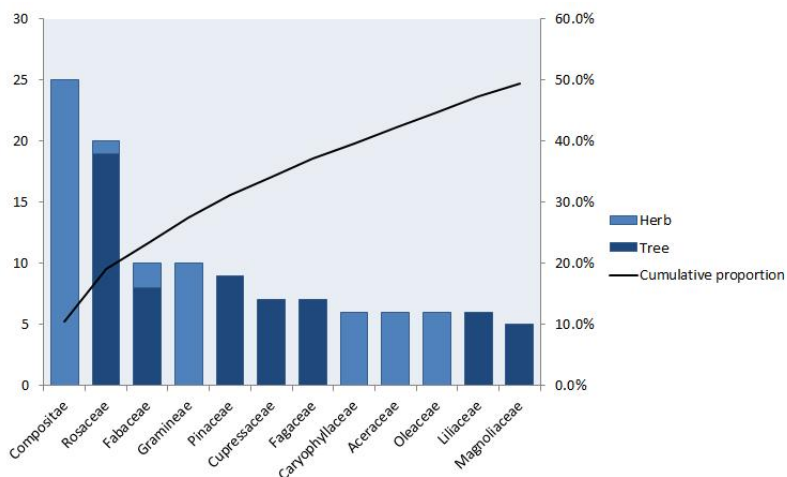


그림 2. 과별 출현 개체수 (상위 12개 과)

## 2. 귀화식물

귀화식물은 17과 28속 31종 31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이 중 초본과 목본은 각각 28종(90.3%), 3종(9.7%)으로 나타나 초본의 비중이 높았다. 초본은 1년생, 2년생, 다년생이 각각 9종, 9종, 10종이 나타났고 목본에서 관목과 교목이 각각 1종(죽제비싸리), 2종(아까시나무, 일본목련) 확인되었다(그림 3). 가장 많은 분류군이 나타난 과는 국화과이며 11분류군(35.5%)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콩과, 석죽과, 현삼과 등의 순으로 3분류군, 2분류군, 2분류군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의 과는 1분류군만이 나타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웠다(그림 4).

귀화식물의 대부분은 이입식물이었으며, 분꽃, 일본목련은 식재종이었고 큰금계국의 경우 과거 식재되었거나 주변 식재지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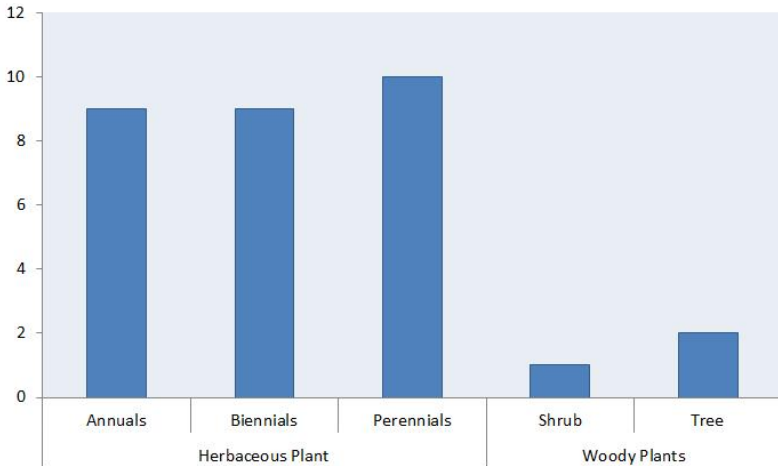


그림 3. 성장에 따른 귀화식물 개체수

10 \_ 생태환경논집 [Vol.7, no.2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식물상 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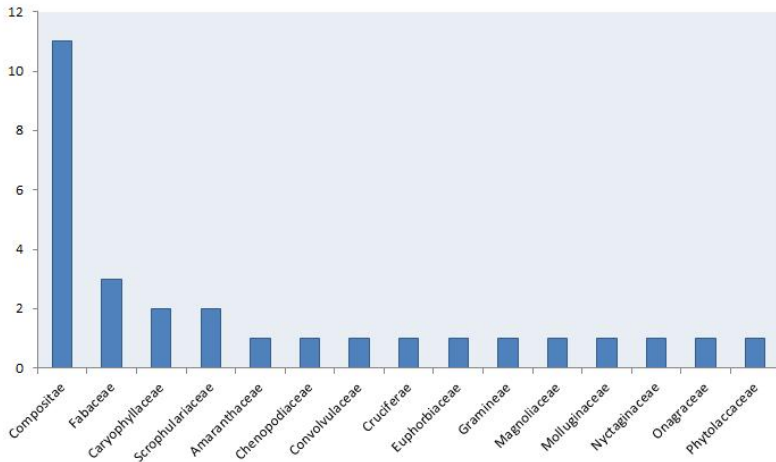


그림 4. 과별 귀화식물 개체수

원산지는 북아메리카가 13종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유라시아, 유럽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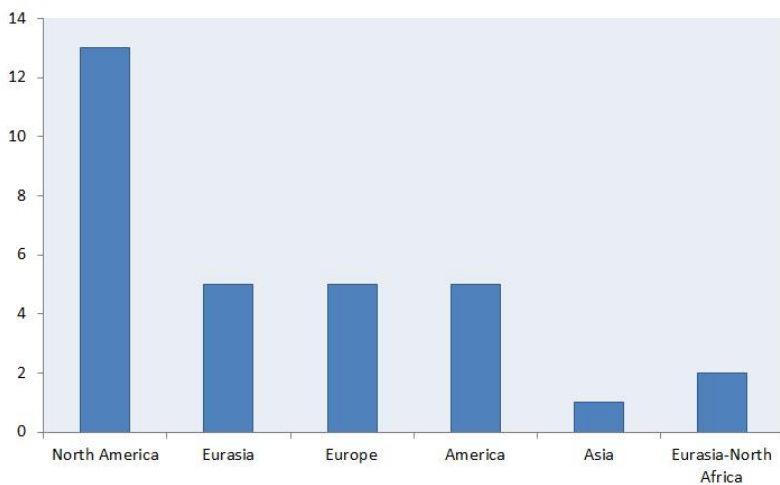


그림 5. 원산지에 따른 귀화식물 개체수

생태계교란식물은 가시상추, 서양등골나물, 환삼덩굴이 확인되었다. 다만 대상지 전체에서 확인될 만큼 세력이 크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일부 지역에 한해 관찰할 수 있어 이들에 의한 주변환경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귀화율은 13.1%로 나타나 우리나라 산지 평균 귀화율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공우석 등, 2014). 이는 남산이라고 하는 도시림에 인접해 있어 등산객의 경로로도 이용되고 있고 대학교 캠퍼스라고 하는 특성으로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인은 식물상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추세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IV. 결론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남산과 인접한 대학 캠퍼스라고 하는 입지 조건 속에서 많은 식물 분류군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귀화율은 일반적인 도시림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경공간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추가적인 식재작업 및 예초작업 역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식물의 종수 및 세력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향후 장기적인 식물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공우석, 김진옥, 이슬기, 박희나, 「서울시 도시 숲의 경관생태와 관리방안」, 환경영향평가, 제23권, 제3호, 2014, pp. 208-219.
- 국립수목원, 「국가표준식물목록(개정판)」, 2017.
- 김진석, 김종환, 김종현, 『한국의 들꽃』, 돌베개, 2018.
- 김진석, 김태영, 『한국의 나무』, 돌베개, 2011.
- 이창복, 『원색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2003.
- 정수영, 이준우, 권영환, 신현탁, 김상준, 안종빈, 허태임, 『한국 침입외래식물의 이해』,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존과, 2016.
- 조양훈, 김종환, 박수현, 『벼과·사초과 생태도감』, 지오북, 2016.
- Numata, M., Illustrated plant ecology. Ashakura Book Co., Tokyo, 1970.
- Park, M. S., D. O. Lim, and H. S. Kim, "Distribution and management of naturalized plants in the eastern area of Jellanamdo, Korea", Korean J. Plant Res. Vol. 24, No. 5, 2011, pp. 489-498.

## ABSTRACT

Characteristics of Vascular Plants in Seoul Campus, Dongguk University

Ohjung Kwon

This study is performed to provide basic data of flora for confirm changing trend in future in Seoul campus, Dongguk University. 237 taxa were observed in the plants of the Dongguk University Seoul campus, and 31 taxa of the naturalized plants were identified. 25 taxa were identified in Asteraceae and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111 herbaceous plants and 126 woody plants were investigated. The naturalization rate of Seoul campus, Dongguk University was 13.1%. Although Dongguk University is located in the center of Seoul and is adjacent to Namsan and there are heavy movement of traffic, there were various plants and naturalization index was not high.

Keywords: Disturbance, Naturalized Plants, University, Naturalization Index, Flora, Exotic species, Campus

부록 1.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식물상

Family name	Scientific name
Equisetaceae	<i>Equisetum arvense</i> L.
Ginkgoaceae	<i>Ginkgo biloba</i> L.
Cupressaceae	<i>Chamaecyparis pisifera</i> (Siebold & Zucc.) Endl. <i>Juniperus chinensis</i> L. <i>Juniperus chinensis</i> var. <i>sargentii</i> A.Henry <i>Juniperus rigida</i> Siebold & Zucc. <i>Metasequoia glyptostroboides</i> Hu & W.C.Cheng <i>Thuja occidentalis</i> L. <i>Platycladus orientalis</i> (L.) Franco
Taxaceae	<i>Taxus cuspidata</i> Siebold & Zucc.
Pinaceae	<i>Abies holophylla</i> Maxim. <i>Abies koreana</i> E.H.Wilson <i>Picea abies</i> (L.) H.Karst. <i>Pinus bungeana</i> Zucc. ex Endl. <i>Pinus densiflora</i> Siebold & Zucc. <i>Pinus densiflora</i> f. <i>multicaulis</i> Uyeki <i>Pinus koraiensis</i> Siebold & Zucc. <i>Pinus parviflora</i> Siebold & Zucc. <i>Pinus strobus</i> L.
Magnoliaceae	<i>Liriodendron tulipifera</i> L. <i>Magnolia denudata</i> Desr. <i>Magnolia denudata</i> var. <i>purpurascens</i> (Maxim.) Rehder & E.H.Wilson <i>Magnolia kobus</i> DC. <i>Magnolia obovata</i> Thunb.
Berberidaceae	<i>Nandina domestica</i> Thunb.
Lardizabalaceae	<i>Akebia quinata</i> (Houtt.) Decne.
Menispermaceae	<i>Cocculus trilobus</i> (Thunb.) DC.
Papaveraceae	<i>Chelidonium majus</i> var. <i>asiaticum</i> (H. Hara) Ohwi
Fumariaceae	<i>Corydalis incisa</i> (Thunb.) Pers.
Papaveraceae	<i>Dicentra spectabilis</i> (L.) Lem.
Ranunculaceae	<i>Clematis apiifolia</i> DC.
Nelumbonaceae	<i>Nelumbo nucifera</i> Gaertn.
Buxaceae	<i>Buxus koreana</i> Nakaie x Chung & al. <i>Pachysandra terminalis</i> Siebold & Zucc.
Crassulaceae	<i>Sedum bulbiferum</i> Makino <i>Sedum kamschaticum</i> Fisch. & Mey.

부록 1. (계속)

Family name	Scientific name
	<i>Sedum sarmentosum</i> Bunge
Paeoniaceae	<i>Paeonia lactiflora</i> Pall. <i>Paeonia suffruticosa</i> Andrews
Saxifragaceae	<i>Mukdenia rossii</i> (Oliv.) Koidz. <i>Saxifraga stolonifera</i> Meerb.
Vitaceae	<i>Parthenocissus quinquefolia</i> (L.) Planch. <i>Parthenocissus tricuspidata</i> (Siebold & Zucc.) Planch.
Celastraceae	<i>Celastrus orbiculatus</i> Thunb. <i>Euonymus alatus</i> (Thunb.) Siebold <i>Euonymus fortunei</i> var. <i>radicans</i> (Siebold & Miq.) Rehder <i>Euonymus japonicus</i> Thunb.
Oxalidaceae	<i>Oxalis corniculata</i> L. <i>Oxalis stricta</i> L. <i>Oxalis triangularis</i> subsp. <i>papilionacea</i> (Hoffmanns. ex Zucc.) Lourteig
Euphorbiaceae	<i>Acalypha australis</i> L. <i>Euphorbia supina</i> Raf. <i>Phyllanthus urinaria</i> L. <i>Securinega suffruticosa</i> (Pall.) Rehder
Salicaceae	<i>Populus tomentiglandulosa</i> T.B.Lee
Violaceae	<i>Viola mandshurica</i> W.Becker <i>Viola papilionacea</i> Pursh <i>Viola verecunda</i> A. Gray
Fabaceae	<i>Albizia julibrissin</i> Durazz. <i>Amorpha fruticosa</i> L. <i>Amphicarpaea bracteata</i> subsp. <i>edgeworthii</i> (Benth.) H.Obashi <i>Cercis chinensis</i> Bunge <i>Indigofera kirilowii</i> Maxim. ex Palib. <i>Lespedeza cyrtobotrya</i> Miq. <i>Robinia pseudoacacia</i> L. <i>Styphnolobium japonicum</i> (L.) Schott <i>Trifolium repens</i> L. <i>Wisteria floribunda</i> (Willd.) DC.
Cannabaceae	<i>Humulus japonicus</i> Siebold & Zucc.
Elaeagnaceae	<i>Elaeagnus multiflora</i> Thunb.
Moraceae	<i>Fatoua villosa</i> (Thunb.) Nakai



## 부록 1. (계속)

Family name	Scientific name
Rhamnaceae	<i>Ziziphus jujuba</i> var. <i>inermis</i> (Bunge) Rehder
Rosaceae	<i>Chaenomeles sinensis</i> (Thouin) Koehne
	<i>Cotoneaster horizontalis</i> Decne.
	<i>Crataegus pinnatifida</i> Bunge
	<i>Duchesnea indica</i> (Andr.) Focke
	<i>Kerria japonica</i> f. <i>pleniflora</i> (Witte) Rehder
	<i>Malus sieboldii</i> (Regel) Rehder
	<i>Prunus armeniaca</i> L.
	<i>Prunus glandulosa</i> f. <i>albiplena</i> Koehne
	<i>Prunus serrulata</i> var. <i>spontanea</i> (Maxim.) E.H.Wilson
	<i>Prunus sargentii</i> Rehder
	<i>Prunus serotina</i> Ehrh.
	<i>Prunus serrulata</i> var. <i>pubescens</i> (Makino) Nakai
	<i>Prunus tomentosa</i> Thunb.
	<i>Prunus yedoensis</i> Matsum.
	<i>Rosa multiflora</i> Thunb.
	<i>Rosa multiflora</i> var. <i>platyphylla</i> Thory
	<i>Sorbus alnifolia</i> (Siebold & Zucc.) C.Koch
	<i>Sorbus commixta</i> Hedl.
	<i>Spiraea prunifolia</i> f. <i>simpliciflora</i> Nakai
	<i>Stephanandra incisa</i> (Thunb.) Zabel
Ulmaceae	<i>Ulmus pumila</i> L.
	<i>Zelkova serrata</i> (Thunb.) Makino
Betulaceae	<i>Betula platyphylla</i> var. <i>japonica</i> (Miq.) H. Hara
	<i>Corylus heterophylla</i> Fisch. ex Trautv.
Fagaceae	<i>Castanea crenata</i> Siebold & Zucc.
	<i>Quercus acutissima</i> Carruth.
	<i>Quercus aliena</i> Blume
	<i>Quercus dentata</i> Thunb.
	<i>Quercus mongolica</i> Fisch. ex Ledeb.
	<i>Quercus palustris</i> Munchh.
	<i>Quercus serrata</i> Murray
Juglandaceae	<i>Carya illinoensis</i> (Wangenh.) K. Koch
Punicaceae	<i>Punica granatum</i> L.
Onagraceae	<i>Oenothera biennis</i> L.
Anacardiaceae	<i>Rhus javanica</i> L.

부록 1. (계속)

Family name	Scientific name
Rutaceae	<i>Zanthoxylum schinifolium</i> Siebold & Zucc.
Aceraceae	<i>Acer buergerianum</i> Miq. <i>Acer palmatum</i> Thunb. <i>Acer palmatum</i> var. <i>dissectum</i> Dissectum Viride Group <i>Acer saccharum</i> Marshall <i>Acer tataricum</i> subsp. <i>ginnala</i> (Maxim.) Wesm. <i>Acer triflorum</i> Kom.
Sapindaceae	<i>Koelreuteria paniculata</i> Laxmann
Simaroubaceae	<i>Ailanthus altissima</i> (Mill.) Swingle
Malvaceae	<i>Abutilon theophrasti</i> Medicus
Malvaceae	<i>Hibiscus syriacus</i> L.
Tiliaceae	<i>Tilia mandshurica</i> Rupr. & Maxim.
Cruciferae	<i>Capsella bursa-pastoris</i> (L.) L.W.Medicus
Cruciferae	<i>Cardamine flexuosa</i> With.
Cruciferae	<i>Lepidium virginicum</i> L.
Cruciferae	<i>Rorippa palustris</i> (Leyss.) Besser
Compositae	<i>Rorippa indica</i> (L.) Hiem
Amaranthaceae	<i>Achyranthes japonica</i> (Miq.) Nakai <i>Chenopodium album</i> L.
Chenopodiaceae	<i>Chenopodium ficifolium</i> Smith
Caryophyllaceae	<i>Cerastium glomeratum</i> Thuill. <i>Cerastium holosteoides</i> var. <i>hallaisanense</i> (Nakai) Mizush. <i>Sagina japonica</i> (Sw.) Ohwi <i>Silene armeria</i> L. <i>Stellaria aquatica</i> (L.) Scop. <i>Stellaria media</i> (L.) Vill.
Molluginaceae	<i>Mollugo verticillata</i> L.
Nyctaginaceae	<i>Mirabilis jalapa</i> L.
Phytolaccaceae	<i>Phytolacca americana</i> L.
Polygonaceae	<i>Fallopia dumetorum</i> (L.) Holub <i>Polygonum aviculare</i> L. <i>Rumex crispus</i> L.
Portulacaceae	<i>Portulaca oleracea</i> L.
Cornaceae	<i>Cornus alba</i> L. <i>Cornus kousa</i> F.Buerger ex Hance <i>Cornus officinalis</i> Siebold & Zucc.

## 부록 1. (계속)

Family name	Scientific name
Hydrangeaceae	<i>Deutzia crenata</i> Siebold & Zucc.
	<i>Deutzia crenata</i> f. <i>plena</i> Schneid
	<i>Hydrangea serrata</i> f. <i>acuminata</i> (Siebold & Zucc.) E.H.Wilson
Ebenaceae	<i>Diospyros kaki</i> Thunb.
	<i>Diospyros lotus</i> L.
Ericaceae	<i>Rhododendron indicum</i> (L.) Sweet
	<i>Rhododendron mucronulatum</i> Turcz.
	<i>Rhododendron yedoense</i> f. <i>poukhanense</i> (H.Lév.) M.Sugim. ex T.Yamaz.
Polemoniaceae	<i>Phlox paniculata</i> L.
Styracaceae	<i>Styrax japonicus</i> Siebold & Zucc.
Symplocaceae	<i>Symplocos chinensis</i> f. <i>pilosa</i> (Nakai) Ohwi
Apocynaceae	<i>Metaplexis japonica</i> (Thunb.) Makino
	<i>Vinca minor</i> L.
Rubiaceae	<i>Galium spurium</i> var. <i>echinospermon</i> (Wallr.) Hayek
	<i>Paederia scandens</i> (Lour.) Merr.
Compositae	<i>Rubia akane</i> Nakai
Convolvulaceae	<i>Calystegia hederacea</i> Wall.
	<i>Ipomoea purpurea</i> (L.) Roth
Solanaceae	<i>Lycium chinense</i> Mill.
	<i>Solanum lyratum</i> Thunb.
	<i>Solanum nigrum</i> L.
Boraginaceae	<i>Trigonotis peduncularis</i> (Trevir.) Benth. ex Hemsl.
Bignoniaceae	<i>Campsis grandiflora</i> (Thunb.) K.Schum.
	<i>Campsis radicans</i> (L.) Seem.
Verbenaceae	<i>Callicarpa dichotoma</i> (Lour.) K.Koch
	<i>Clerodendrum trichotomum</i> Thunb.
Lamiaceae	<i>Physostegia virginiana</i> (L.) Benth.
Scrophulariaceae	<i>Mazus pumilus</i> (Burm.f.) Steenis
Oleaceae	<i>Chionanthus retusus</i> Lindl. & Paxton
	<i>Forsythia koreana</i> (Rehder) Nakai
	<i>Fraxinus rhynchophylla</i> Hance
	<i>Jasminum nudiflorum</i> Lindl.
	<i>Ligustrum obtusifolium</i> Siebold & Zucc.
	<i>Syringa vulgaris</i> L.
Plantaginaceae	<i>Plantago asiatica</i> L.
Scrophulariaceae	<i>Veronica arvensis</i> L.

부록 1. (계속)

Family name	Scientific name
	<i>Veronica hederifolia</i> L.
Aquifoliaceae	<i>Ilex serrata</i> Thunb.
Compositae	<i>Eupatorium rugosum</i> Houtt.
	<i>Artemisia princeps</i> Pamp.
	<i>Bidens bipinnata</i> L.
	<i>Carduus crispus</i> L.
	<i>Carpesium divaricatum</i> Siebold & Zucc.
	<i>Centipeda minima</i> (L.) A.Br. & Asch.
	<i>Conyza canadensis</i> (L.) Cronquist
	<i>Coreopsis lanceolata</i> L.
	<i>Crepidiastrum sonchifolium</i> (Maxim.) Pak & Kawano
	<i>Dendranthema boreale</i> (Makino) Ling ex Kitam.
	<i>Erechtites hieracifolia</i> Raf.
	<i>Erigeron annuus</i> (L.) Pers.
	<i>Erigeron strigosus</i> Muhl. ex Willd.
	<i>Galinsoga ciliata</i> (Raf.) S.F.Blake
	<i>Helianthus tuberosus</i> L.
	<i>Hemistepta lyrata</i> Bunge
	<i>Ixeris chinensis</i> (Thunb.) Nakai
	<i>Ixeris strigosa</i> (H.Lév. & Vaniot) J.H.Pak & Kawano
	<i>Lactuca indica</i> L.
	<i>Lactuca scariola</i> L.
	<i>Petasites japonicus</i> (Siebold & Zucc.) Maxim.
	<i>Taraxacum officinale</i> Weber
	<i>Youngia japonica</i> (L.) DC.
Araliaceae	<i>Hedera rhombea</i> (Miq.) Siebold & Zucc. ex Bean
	<i>Kalopanax septemlobus</i> (Thunb.) Koidz.
Caprifoliaceae	<i>Sambucus williamsii</i> var. <i>coreana</i> (Nakai) Nakai
	<i>Viburnum opulus</i> var. <i>calvescens</i> (Rehder) H. Hara
	<i>Viburnum opulus</i> f. <i>hydrangeoides</i> (Nakai) Hara
	<i>Lonicera japonica</i> Thunb.
Araceae	<i>Pinellia ternata</i> (Thunb.) Breitenb.
Dioscoreaceae	<i>Dioscorea batatas</i> Decne.
Liliaceae	<i>Lilium lancifolium</i> Thunb.
	<i>Tulipa</i> sp.
Amaryllidaceae	<i>Allium macrostemon</i> Bunge

부록 1. (계속)

Family name	Scientific name
Liliaceae	<i>Allium tuberosum</i> Rottler ex Spreng. <i>Hosta longipes</i> (Franch. & Sav.) Matsum.
Asparagaceae	<i>Hosta plantaginea</i> (Lam.) Asch. <i>Liriope platyphylla</i> F.T.Wang & T.Tang
Liliaceae	<i>Polygonatum odoratum</i> var. <i>pluriflorum</i> f. <i>variegatum</i> Y.N.Lee
Agavaceae	<i>Yucca filamentosa</i> L.
Liliaceae	<i>Hemerocallis fulva</i> (L.) L.
Iridaceae	<i>Belamcanda chinensis</i> (L.) DC. <i>Iris pseudacorus</i> L.
Gramineae	<i>Digitaria ciliaris</i> (Retz.) Koel. <i>Agropyron ciliare</i> (Trin.) Franch. <i>Agropyron tsukushiense</i> var. <i>transiens</i> (Hack.) Ohwi <i>Imperata cylindrica</i> var. <i>koenigii</i> (Retz.) Pilg. <i>Miscanthus sinensis</i> var. <i>purpurascens</i> (Andersson) Rendle <i>Oplismenus undulatifolius</i> (Ard.) P.Beauv. <i>Poa compressa</i> L. <i>Setaria glauca</i> var. <i>dura</i> (Chung) Chung <i>Setaria viridis</i> (L.) P.Beauv. <i>Zoysia japonica</i> Steud.
Typhaceae	<i>Typha orientalis</i> C.Presl
Commelinaceae	<i>Commelina communis</i> L.



# 생태환경논집 주제 다양성 분석

권오정\*

---

## <목 차>

I. 서론

II. 주제별 원고

III. 마치며

---

---

\*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소 (ojtale@dongguk.edu)

복합학 학술지인 생태환경논집은 다양한 분야의 생각과 접근을 전달하고자 발간되고 있다. 창간호에서부터 7권 1호까지의 총 80편의 원고를 제목을 통해 분류한 결과 9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었다. 본 논집의 대주제인 생태환경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가 생물생태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다루어져 오고 있기는 하나 수문학, 농업, 기후,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다각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분야간 협동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도로 전문화된 각기 다른 전문분야에서 생태환경을 각자의 방식대로 다루고, 그것을 하나의 논집에서 엮어낸다면 연구자와 독자의 시야와 생각의 폭을 넓히는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논집, 복합학, 분류, 생태환경, 주제

## I. 서론

복합학 학술지인 생태환경논집은 불교학, 인문사회과학, 자연 및 공학의 학제간연구를 바탕으로 발간되는 복합학 학술지로, 생태 및 환경보전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생각과 접근을 전달하고자 발간되고 있다. 생태환경논집은 최근 7권 1호에 이르기까지 수십여편의 원고들이 접수되고 발간되었는데 그동안 어떠한 주제들이 제기되고 논의되어 왔는지 분석해 보았다.

창간호에서부터 7권 1호까지의 총 80편의 원고를 제목 기준으로 공통된 주제로 분류하고 해당 주제의 편수 및 내용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다만, 2개 이상의 주제를 담고 있는 원고의 경우 원고의 방향이나 결론 등을 참고하여 조금 더 비중 있는 측면에서의 주제로 분류하였다.

## II. 주제별 원고

80편의 원고는 9개의 큰 주제(생태환경, 수문학, 기후환경, 농업, 에너지, 패션디자인, 저영향개발, 화학, 환경공학)로 분류할 수 있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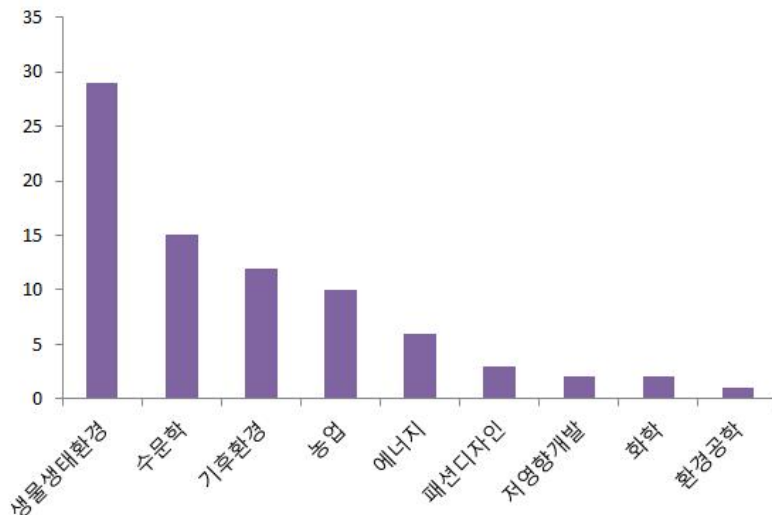


그림 1. 주제별 원고 비중

가장 많이 투고된 주제는 생물생태환경 분야로 전체 원고의 36.3%를 차지하고 있었다. 해당 분야에서는 주로 식물과 동물을 주제로 하며 생물 다양성, 바이오, 도시환경 등을 다루고 있다. 수문학 분야는 원고의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원, 하천 및 강우에서 오염원 관리, 모니터링 방법, 물순환 관리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기후환경(15.0%)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 사회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와 사회적 역할들을 다루고 있으며 과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다루었다. 농업(12.5%)의 경우 생물다양성, 청소년 교육 측면에서 접근하며 전통적 농업과 함께 도시농업에 대한 주제가 많이 다루어져 왔다. 에너지(7.5%) 주제에서는 미래 에너지에 대해 어떠한 과제와 쟁점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패션디자인(3.8%), 저영향개발(2.5%), 화학분야

(2.5%), 환경공학(1.3%)에서는 지속가능하면서도 환경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및 방안 등의 주제도 다루고 있다.

본 논집의 대주제인 생태환경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가 생물생태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다루어져 오고 있기는 하나 수문학, 농업, 기후, 에너지 등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태환경이라고 하는 주제가 기본적으로 생물환경 분야에서 비교적 많이 다루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한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도 다각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생태계 순환 속에서 각각의 분야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분야를 통해 생태환경이 다루어질 수 있음을 방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제들은 현대사회에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핵심 주제이라고도 할 수 있다.

### III. 마치며

이번 분석은 원고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만 간략히 분석되었고 해당 주제에 접근하는 전공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예를 들어 농업분야에 대해 생물학적 접근, 생태학적 접근, 수문학적 접근, 문학적 접근, 불교학적 접근, 물리·화학적 접근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각 전공분야가 가지는 접근방식의 차이, 관심분야여부, 협동연구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여건 등으로 인해 각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에 한해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전문분야간 협동연구가 아

나라고 하더라도 고도로 전문화된 각기 다른 전문분야에서 생태환경을 각자의 방식대로 다루고, 그것을 하나의 논집에서 엮어낸다면 연구자와 독자의 시야와 생각의 폭을 넓히는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생태환경연구소, 「생태환경논집」, 창간호, 2013.

생태환경연구소, 「생태환경논집」, 2권, 2014.

생태환경연구소, 「생태환경논집」, 3권, 2015.

생태환경연구소, 「생태환경논집」, 4권, 2016.

생태환경연구소, 「생태환경논집」, 5권, 2017.

생태환경연구소, 「생태환경논집」, 6권, 2018.

생태환경연구소, 「생태환경논집」, 7권, 1호, 2019.

## ABSTRACT

Analysis of the Diversity of Manuscript Subjects in Journal of Ecological Environment

Ohjung Kwon

Journal of ecological environment has been published to share ideas and approaches in various field of study. A total of 80 manuscripts from the first issue to the first issue of Vol. 7, No. 1 were categorized by title, and were divided into nine themes. The theme of ecological environment is that although relatively many cases have been dealt with much in the field of biological ecology, the approach of hydrology, environment, agriculture, climate and energy is taken. Even if it is not a collaborative research, it is possible to play a role in broadening the range of ideas of researchers and readers by treating the ecological environment in their own way in different specialized fields and combining them.

Keywords: Journal, Interdisciplinary, Classification, Ecological environment, Theme

Journal of Ecological Environment  
Institute of Ecological Environment, Dongguk University

---

Vol.7, no.2

December, 2019

---

Contents

<Articles>

Characteristics of Vascular Plants in Seoul Campus, Dongguk University

..... Ohjung Kwon

Analysis of the Diversity of Manuscript Subjects in Journal of Ecological Environment

..... Ohjung Kwon

## 「생태환경논집」 논문투고 규정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소의 생태환경논집원고 투고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본 연구소의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반환할 수 있다.

### 1. 투고논문의 내용

투고 논문의 내용은 생태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학제간 연구를 포함하며, 독창적인 것이거나 그러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2. 원고 투고 형식

- 1) 한글과 한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2) 차례를 저자의 성명 바로 다음에 넣는다.
- 3) 논문의 제목, 저자의 성명(공동저자 포함), 소속, 연락 전화번호, E-mail 주소는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해야 한다.

### 3. 원고 종류

생태환경 및 그와 유관한 분야에 관한 제반연구

#### 1) 논문

- (1) 기획논문 : 기획 주제에 관한 논문
- (2) 일반논문 : 자유 주제에 관한 논문

(3) 특별논문 : 청탁에 의하거나 학계의 권위자로부터 투고된 논문

2) 논문 외 제반연구물

(1) 서 평 : 국내외에서 간행된 저서 혹은 번역서에 관한 내용

(2) 논문평 : 국내외에서 발표한 주요 논문(학위논문포함) 및 연구동향·연구업적에 관한 내용

4. 논문 형식

1) 내용 전개 순서는 I. 1. 1) (1) ①로 정하고 타이틀과 내용 사이는 한 칸씩 띄운다.

2) 각주는 해당 페이지의 아래에 두고 일련번호를 붙인다.

3) 문단모양은 왼쪽여백 0, 오른쪽여백 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으로 통일한다.

4) 글자크기는 10으로 지정한다.

5) 그림은 <그림1>...로, 표는 <표 1>...의 순서로 한다.

6) 국문·영문초록의 분량은 각각 A4 반장 분량(200자 원고지 2-3매 가량)이다.

7) 주제어는 한글과 영문으로 5~7개를 작성한다. 국문초록 하단에 국문의 주제어를 고딕체로, 영문초록 하단에 영문의 주제어를 고딕체로 각각 작성하여 첨부한다. 영문 주제어는 국문 주제어의 정확한 번역이어야 한다.

8) 투고 논문의 분량은 A4용지 20매(국문초록, 영문초록,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한 분량) 내외로 하고 직접, 우편, 혹은 E-mail로 제출한다.



9) 참고문헌은 한글문헌을 ‘가나다’順으로 먼저 넣고 다음에 일본문헌, 영문문헌을 ‘abc’順으로 뒤에 넣어 일련번호를 붙인다.

<참고문헌 예>

① 국내 단행본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② 국내 논문

강창모, 「김지하 시에 나타난 동학사상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정영일, 「전후세대의 경제의식」,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9권 제 1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7. 11.

③ 기타 국내 문헌

이정진, 「산업발전과 환경오염규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에 관한 심포지움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1961. 6.

④ 외국 단행본

Hong, W. T., Trade, Distors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9.

⑤ 외국 논문

Krueger, A. O.,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4, 1974, pp. 291~303.

⑥ 기타 외국 문헌

Kang, S. H., H. G. Cho, and S. M. Yoon, "Modeling Sudden Volatility Changes: Evidence from Japanese and Korean Stock Markets", Physica A, Vol. 388, 2009, pp. 3543~3550.

5. 접수처 및 연락처

주소 :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계산관 B동 304호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소

전화 : 02-2260-8648

팩스 : 02-2260-8649

전자우편 : [ecoresearch@dongguk.edu](mailto:ecoresearch@dongguk.edu)

## 생태환경논집 [Vol.7 no.2]

초판 발행 2019년 12월 30일

발행처 |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소

발행인 | 이상일

편집인 | 권오정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계산관 B동 304호

전화 | (02)2260-8648

팩스 | (02)2260-8649

전자우편 | [ecoresearch@dongguk.edu](mailto:ecoresearch@dongguk.edu)

홈페이지 | <http://eco-research.dongguk.edu/>